

# “혁신도시 자녀 광주로 안 가게 교육여건 개선을”

##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첫날

전남도의회는 10일 제29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도정질문에는 이민준(나주 1)·윤문철(여수)·박철홍(담양 1)·고경석(목포 3)·이경동(완도 2)·정병희(순천)·김태균(광양) 의원이 나주혁신도시 교육활성화 문제와 해양쓰레기 수매제도 시범사업 건의, 지방도로 건설정책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주혁신도시 직원 자녀 광주로 등·하교=이민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녀들이 나주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나주혁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오고 있는데, 직원 자녀들이 나주가 아닌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혁신도시 내

## 해양 쓰레기 수매제 시범사업 실시해야 지방도로 조기 완공 주민 불편 최소화

교육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직원 자녀들이 나주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초등학교 기준 학급당 학생수를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나주시 거주 이전이관 임직원 자녀 중 전남외고 및 전남과학고 진학시 10%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남도 남해안 해양쓰레기 산더미=윤문철 의원은 “전남도 남해안에 페스타호텔과 페비빌 등 수만 톤의 해양쓰레기 해안가에 수북히 쌓여 있는데, 해양쓰레기 수매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 의원은 “연간 수 백만 명의 관광객이

어촌을 찾는데, 어촌 관광 활성화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어민들이) 매년 해안가로 밀려드는 쓰레기를 치우느라 애를 쓰는데, 밀려드는 쓰레기 양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조업중 인양한 해 양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올 경우 이를 구매하는 해양 쓰레기 수매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도로 건설 정책 심각=박철홍 의원은 “지방도로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로 건설이 늦어지면서 지역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조기에 완공해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남도가 추진 중인 지구(485억 원)와 설계 완료 후 미착공 지구(7138억 원), 설계중인 지구(1580억 원) 등 지방도를 매년 투자해 700억 원으로 완공하려면 17.5년이 소요된다”며 “지방채를 내더라도 현재 확정된 지방도로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잦은 보직 ‘왜?’=김태균 의원은 “최근 5년간 실국장 및 실과장에 대한 순환보직이 잦은데,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실국장급(72명) 평균 보임기간이 1년4개월, 과장급(133명)이 1년5개월인데, 이는 정년·명예퇴직과 장기 교육과정 입고, 시군부단체장 근무기간 제한에 따른 도시교류 및 승진 때문”이라며 “개 개 직위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정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중행 기자 galee@kwangju.co.kr

# 광주시 제2순환로 보조금 지급 보류

## 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 대법 판결시까지 중지키로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협약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데다 현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겠다.

광주시는 10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고 사업자가 별도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로, 맥컬리한국인프라투자자가 대주주다.

시는 예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최근 재정경감 대책단 자문 등 의견을 수렴, 보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민간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소송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불합리한 보조금 수준도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소송과 함께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등을 낮추는 협상

을 하는 등 양면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치 633억원이다.

최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이 각하되면서 민간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문제가 현안이 됐다.

하지만 이 보조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물어야 할 6억원대 소송비용과 가산세 등은 광주시의 부담이다.

이 도로는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의 85%가 되지 않으면 그 차액을 보조(MRG)하기로 협약한, 민자유지 사업 도로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미 1190억원 원을 민자회사에 보조금 명목으로 줬다.

광주시는 대주주인 맥컬리 측이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왜곡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는 소송을 진행중이며 1.2심에서 승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U대회 성공 에너지 광주 경제성장 동력으로”

## 김윤석 사무총장, 토론회서 ‘포스트 에픽’ 전략 제시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의 원동력을 광주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이어가기 위한 캠페인으로 ‘포스트 에픽(POST EPIC)’ 전략을 제시했다.

광주U대회 조직위 김윤석 사무총장은 10일 빛고을문화관에서 열린 광주U대회 성공 확산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포스트 에픽 전략을 제안했다.

광주U대회를 성공시킨 시민들의 역량과 에너지를 계승할 새로운 전략이란 의미에서 유대회 비전이었던 에픽을 그대로 승계한 개념이다. EPIC은 친환경(Eco), 평화(Peace), 기술(IT), 문화(Culture)를 줄인 말로 유니버시아드의 콘셉트다.

포스트 에픽은 광주U대회의 성과가 광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경제(Economy)를 강조하고 있다. 광주의 도시 위상을 새롭게 정립(Positioning)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재와 도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Investment)가 필요하며, 광주만의 정체성을 드러낼 문화(Culture)를 정착해 광주 비전을 완성하자는 내용이다.

김 사무총장의 전략은 U대회 성공 개최의 원인이 됐던 광주 시민의 배려와 협력에 기초한 ‘긍정의 에너지’들이 빛이 바래기 전에 지역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신속히 이어가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 6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축적된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자신화를 추진하고, UN공통 프로젝트(에픽포럼) 등 도시브랜드화가 가능한 유

산들을 체계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유대회를 통해 형성된 세계 24위의 스포츠 도시 명성을 스포츠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에픽재단 설립 등을 대회의 유산으로 고려해 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윤석 사무총장은 “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광주U대회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계승될 때 비로소 U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성공 개최의 원동력을 도시의 성장동력으로 삼는 캠페인이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공론화되고,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U대회 조직위는 차기개최도시 디브리핑(10월), FISU회원국과 대회 성공을 공유하기 위한 총회 참석(11월), 결과보고서 FISU 제출 및 백서 제작(2016년 1월), 대회 최종보고가 이뤄질 FISU 집행위원회(2월) 등의 과제를 남겨두고 마무리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세계 기부천사 한자리에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워커힌 호텔에서 열린 ‘세계공동모금회2015 자선라운드테이블’ 개막 행사에서 세계 8개국 고액기부자들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터티 회원, 내빈들이 아름다운 기부를 뜻하는 하트를 만들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행뉴스

## 지방 정가

### 임택 “청년예산할당제 실시하자”

광주시의회 임택(동구 1)의원은 2016년 예산부터 ‘청년예산할당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10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향후 5년간 500억원 규모의 신규자원을 마련해 청년일자리, 부채문제, 주거, 문화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집중투자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는 예산은 올 8월에 인상한 주민세 인상분 47억, 이에 따른 부지원 보통교부세 59억 증가 등 매년 확보 가능한 100억 이상의 재원으로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 서미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에도 관련 조례가 마련됐다. 10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서미정(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지적·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지



원’조례보다 한층 넓어져,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 계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전환서비스 제공,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옥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 3)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10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감농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경험, 다양한 기능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업선된, 名人的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